#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벤쿠버 |
|---|---|---|---|
| 파견대학 | Langara College | 기간 | 2020. 01. 12. ~ 02. 02. |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br>벤쿠버 웨스트 49번가에 위치한 Langara College는 버스정류장과 스카이트레인 역이 근처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대학 규모는 순천향대와 비교하자면 작은 편이고 약 5~6개의 건물로 캠퍼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당**은 A빌딩에 위치해 있고 식당 안에는 Tim Hortons(커피&도넛), Triple O's(햄버거) 등등의 가게가 있고 준비해 온 런치박스를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물론 카페테리아 안에서 런치박스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 받는 건물은 L빌딩으로 A빌딩의 반대편이어서 주로 T빌딩에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참고로 T빌딩에는 서브웨이가 있습니다. 주로 건물 화장실 근처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정수기(?)가 있어서 한국에서 텀블러를 챙겨오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은 깨끗한 편이고 규모는 작지만 필요한 시설은 충분히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br>전체적인 분위기는 평범한 대학교 분위기입니다. 도서관에는 공부하거나 스터디모임을 하는 학생들로 늘 채워져 있고 강의실에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 필요한 시설이 다 갖춰져있고 시설(카페테리아,도서관 등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 수업 |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br>**수업**은 구성은 오전수업(9AM~12PM) & 점심시간(12PM~1PM) & 오후수업(1PM~3PM)입니다. 오전 수업은 1주부터 3주까지 주제가 바뀝니다. 제가 간 수업을 예를 들자면 1주는 English Essentials, 2주는 Cultural Studies, 3주는 Global Citizenship 으로 진행되었고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후 수업은 Skill development 수업으로 주로 영어 기초 문법이나 Essay Writing Skill 등을 배웠습니다. 수업은 순천향대에서 듣는 원어민 수업과 비슷한 양상이고 장소만 캐나다로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수업내용은 많이 쉽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동안 잊고 있었거나 새롭게 배우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캐나다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 정리하는 발표입니다. 간단한 발표입니다. |

| | |
|---|---|
| | **강사**는 Mariette 이었고 3주간 모든 수업과 컬링 활동을 제외한 야외 액티비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업 내에 EO규칙이 있는데 수업시간 내에는 영어만 사용하자는 English Only 규칙입니다. 한국학생들끼리 가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하며 영어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지라도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하시고 버벅거린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로 도저히 문장을 못 만드는 경우에는 Mariette 선생님께 많이 여쭈어봤습니다.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질문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셔서 저는 영어가 안 나올 때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떻게 영어로 말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사소한 것도 여쭈어봤습니다.<br>**교재**는 학교에서 유인물을 프린트해서 끼운 바인더와 수업 내용을 필기할 수 있는 얇은 노트같은 종이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해간 노트는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인더가 크고 단단하고 무겁습니다(A4용지보다 큼). 저는 큰 백팩을 갖고 가기 번거로워서 작은 백팩을 사서 갔는데 바인더가 안 들어가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큰 백팩을 준비해온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은 작은 백팩과 큰 백팩의 중간점을 잘 찾아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중에는 Mariette에게 여쭤봐서 수업하는 교실에 교재를 두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실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는 본인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실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필기구가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펜과 얇은 노트를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br>**과제**는 거의 매일 있습니다. 바인더에서 숙제를 내주시기도 하고 에세이 숙제를 내주시기도 합니다. 간단한 과제이지만 솔직히 오후수업까지 마치고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지쳐서 과제가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에게 제가 쓴 글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잘 써가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시는 분들도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필드트립 |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br>-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br>**Acticity** 시간은 이동시간까지 포함해서 대략 12시 40분~ 3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Activity 장소에서는 미션이 주어지고 미션을 완료한다면 자유롭게 장소를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약 3시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이어서 activity장소를 더 돌아다녀도 괜찮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추가비용은 개인이 activity 장소내에서 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br>1주 : **Activity with Langara Students** 는 랑가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환학생을 만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어서 주말에 놀러가는 경우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도 있습니다.<br>2주 :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안은 시장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

| | |
|---|---|
| | 식료품, 정육점, 카페, 베이커리, 꽃집 등 다양한 가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먹어본 것은 a la mode의 크램차우더와 stuart's의 nanaimo bar인데 맛있었습니다. Public Market 외에도 양조장도 있고 문구류를 파는 건물도 있습니다. 양조장 맥주는 가격도 적당하고 괜찮았습니다. fish and chips를 드시고 싶다면 Granville island 안에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다 비슷하다고 들어서 아무데나 가서 먹었습니다. **Museum of Vancouver.** 박물관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밴쿠버의 네온사인 역사에 대한 전시와 밴쿠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Curling.** 춥습니다. 장갑과 목도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발도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컬링이 쉬워보여도 생각보다 힘든 운동이어서 편한 복장이 좋습니다.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현지 기후 및 유의점<br>3주동안 밴쿠버에서 느낀 것은 밴쿠버는 역시 여름이구나입니다. 정말 비만 옵니다. 비만. 비가 안 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눈이 옵니다. 눈도 예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앙처럼 옵니다. 폭설경보로 수업이 다 취소되어 갑작스레 자유시간이 생긴 날 나갔다가 눈에 파묻힐까 두려워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우산** 반드시 챙기시고 휴대하기 편한 접이식 우산을 추천합니다. 옷은 **방수가 되는 겉옷**을 챙기시고 운동화는 젖지 않는 것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죽 소재로 된 앵클부츠를 들고 갔는데 운동화가 방수가 안돼서 오히려 앵클부츠를 더 많이 신었습니다. 기후는 별로 춥지 않습니다. 한국의 초겨울로 넘어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한 벌 챙기기 보다는 겹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여러 벌 챙기고 목도리, 털모자, 장갑 등등 방한 용품을 준비해 갔습니다. |
| 안전 | 현지 안전 상황<br>안전하지만 늦은 밤 한국에서도 조심하듯이 항상 조심하며 다녔습니다. N버스가 있어서 새벽에도 버스가 다니지만 주택가는 밤에 사람이 없고 조용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br>하지만 차이나타운, 다운타운, 리치몬드쪽은 홈리스가 많습니다. 홈리스가 위협을 가하는 일은 전혀 없었지만 항상 소지품을 잘 챙기고 조심하며 다녔습니다. |
| 숙소 |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br>제 홈스테이는 중국계 노부부와 나이가 많은 아들이 있는 집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홈스테이 학생을 돌보고 있었고 저와 저 역시 다른 홈스테이 학생과 같은 층에 살았습니다. 분위기는 너그럽고 배려해주시는 분위기였고 항상 9시 이후에 주무시기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규칙 같은 것은 따로 없었고 주방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빨래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할 수 있습니다. 세제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

| | |
|---|---|
| | 집에 있어서 드라이시트만 한국에서 준비해서 건조할 때 돌렸습니다. 캐나다에 가기 전에 홈스테이 가족과 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고 생활규칙과 한국에서 따로 준비해서 가야할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 수건, 드라이기, 욕실용품 등을 여쭈어봤습니다. 3주간 해외연수를 마치고 드는 생각은 그때 더 자세하게 물어볼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국에서 햇반이나 조리식품을 많이 들고 갔는데 가보니 거의 식사로 아시안음식을 먹어서 햇반이 남았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밥은 주로 뭘 먹는지 여쭈어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br>홈스테이 가족과 외식을 하거나 저를 데리고 놀러가주시기도 했는데 항상 홈스테이 가족이 활동 비용이나 외식비용을 내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용을 여쭈어봤고 괜찮다고 하면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br>저는 홈스테이 생활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가정에 배정받았고 저 역시 항상 공손하고 밝은 태도로 소통에 임하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3주간 아무런 트러블 없이 잘 지내다 올 수 있었습니다. |
| 식사 | 학교식당 ( O ) 외부식당 ( O ) 기타 ( 도시락 )<br>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br>저는 최대한 식비를 아끼려고 점심 저녁을 홈스테이에서 해결했습니다. 아침은 준비해주신 식빵과 잼으로 먹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물려서 과일이나 시리얼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먹었습니다. 저는 못 먹는 음식은 바로바로 말씀 드렸고 감사하게도 제 홈맘이 잘 들어주셨습니다. 음식 때문에 3주간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못 먹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음식(구체적으로)으로 얻을 수 있는지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교통 | 시내교통 관련<br>시내 교통수단으로는 bus, skytrain, taxi(Uber,Lyft)가 있습니다. bus는 모두 존1로 통일이어서 추가요금이 없고 skytrain 같은 경우는 zone과 시간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첫날 밴쿠버에 도착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잘 설명해주실 겁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원래 콜택시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때 막 우버서비스가 시작해서 아마 내년에 가시는 분들은 늦은 밤에 우버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버나 리프트는 한국번호로 미리 회원가입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항목 | 비용(원)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환전 | 300,000 | |
| 카드(하나비바카드) | 600,000 | |
| 항공권,여행자보험 | 약 2,000,000 | |
| | | |
| | | |
| | | |
| | | |
| 합계 | 2,900,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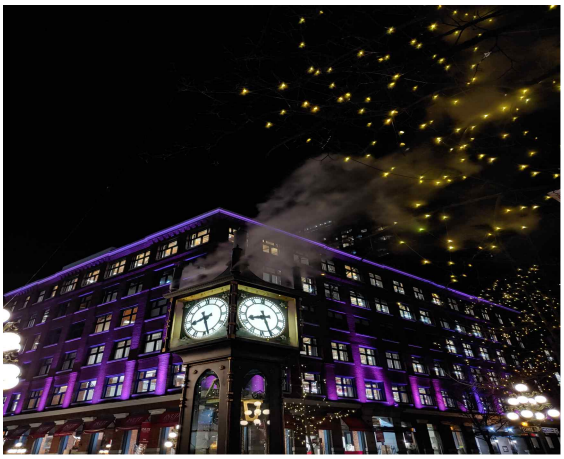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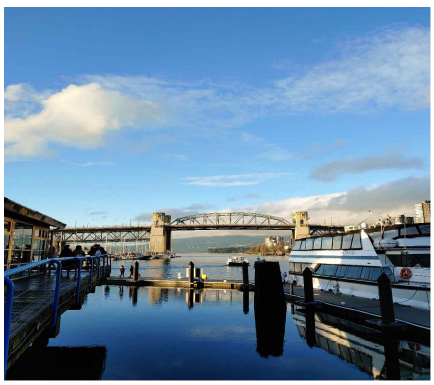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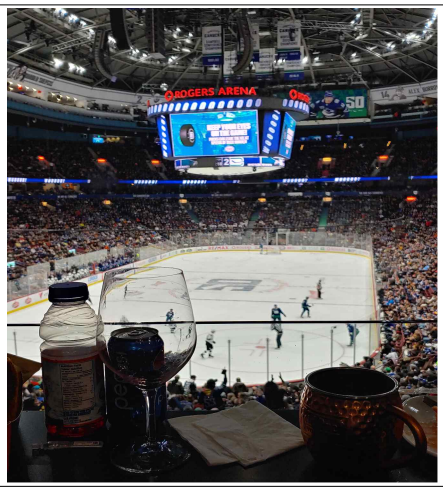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비행기 사전 좌석 예약을 안 해서 후회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창가에 앉았는데 10시간 내내 숨막혀서 힘들었습니다..
대한항공 어플에서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겨울의 밴쿠버는 Raincouver이라는 별명답게 정말 비만 맞다가 온 3주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었고 사전에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신청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문화차이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왔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마음가짐도 다잡고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하고 저는 무엇보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잠자는 곳, 사용하는 언어, 문화, 바깥의 풍경에 적응을 빠르게 해야 했고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낯선곳에서 저 자신에게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점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어학연수에 가시는 모든 분들 가셔서 많이 누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음식도 도전해보시고 모르는 이들과 대화도 해보시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어보시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시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 | | |
|---|---|---|
|  | | |
| 늦은 시간의 Gas Town | | 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 입구에서 |
| | |  |
| 다운타운의 옷가게 | | 잠깐 비가 개고 나온 맑은 하늘 |
|  | | |
| 홈스테이 가족과 보러간 아이스하키게임 | | 폭설로 수업이 취소된 어느 날 |